

지표 호전에도 서민·자영업 체감경기 ‘싸늘’

3분기 서비스업 생산·소매판매

광주 2.4%·전남 2.6% 상승

숙박·음식·교육 줄고 부동산 증가

충남·경기·서울에 두배차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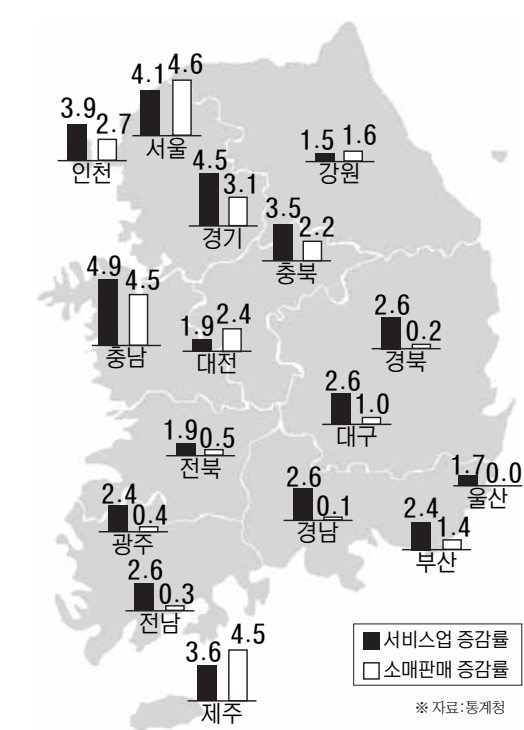
지난 3분기(7월~9월) 광주·전남지역 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지역의 실물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3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2.4%와 2.6% 증가해 전국 평균 3.2%를 밑돌았다.

광주는 지난 1분기 1.5%, 2분기 1.7%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점(-2.5%), 교육(-1.7%) 등에서 감소했으나 보건·사회복지(10.6%), 부동산·임대(9.3%), 금융·보험(1.7%) 등에서 늘었기 때문이다.

전남 역시 전년동분기 대비 2.6% 증가해 지난 2분기 1.4%에 비해 증가폭이 커졌다. 전문·과학·기술(-6.1%), 교

■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육(-1.9%)등에서 감소했으나, 금융·보험, 부동산·임대(8.5%), 보건·사회복지(6.6%) 등에서 늘었다.

서민경제에 맞닿아 있는 소매판매는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태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 소매판매는 전년동분기 대비 4.3% 증가하며 전분기 1.7%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0.4%와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광주는 지난 1분기(-0.2%), 2분기(-1.0%)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으며 대형마트(-4.3%), 백화점(-2.7%), 전문소매점(-2.0%)에서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연료소매점(5.9%),슈퍼마켓·편의점(1.3%)에서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했다.

전남도 지난 1분기(-0.6%)와 2분기(-1.5%)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문소매점(-3.9%), 슈퍼마켓·편의점(-1.1%)에서 감소했으나, 승용차·연료소매점(4.7%), 대형마트(0.5%)에서 늘어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 증가폭은 전분기에 비해 확대되고 특히 소매판매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순천시금고 지정 절차 부당...법적대응 하겠다”

송중욱 광주은행장 기자회견담화...“심사 결과 발표 늦추고 채점표도 의혹”

“내년부터 고졸 채용 적극 검토”

광주은행이 순천시 금고 지정 심의가 부당하게 이뤄졌 다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9일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지난 6일 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NH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KEB하나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했다”며 “하지만 순천시가 심사 당일 곧바로 결과를 밝히지 않고 채점표에도 일부 의혹이 있는 등 심사 과정이 불공정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천시 금고 약정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3년 간이며 제1금고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

계, 등 을 맡고 제2금고 KEB하나은행은 공기업특별회계 를 담당한다.

또 송 행장은 “지난 2014년 이후부터 뽑지 않았던 고졸 출신 신입사원을 내년에는 특성과 고등학교 출신을 채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행장은 대학별 추천제에 대해 “지역 인재를 뽑고자 대학별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인사 민원 등 외풍이 사라졌 다”며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은행이 지역 대 학 추천을 받아 학생들을 뽑는 것은 당연하고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뽑 는다”고 말했다.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등 대학별로 추천 인원



송중욱 은행장

에 차등이 있는 것과 관련해 송 행장은 “학생 수 등 학교 현황에 따라 차등해 뽑는 것”이라며 “광주은행의 채용절차는 매우 공정하게 이뤄지고, 지역인재 발굴 및 지역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행장은 이어 “다음 달 중순까지 임직원 인사를 단 행하겠다”며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3무 원칙’을 지키고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원의 경우 영업 능력 도 중요하지만, 직원 여론, 지역민 평가도 중요하다”며 “조직이 변화려면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점 직원 10% 이상을 줄여서 영업점으로 내보내 겠다”며 영업 강화를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한전 2조6천억원

베트남 화력발전 계약

‘응이손 2’ 25년간 15조 매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산업통상부, 베트남전력공사 등과 응이손2 석탄 화력사업(1200MW) 사업계약<사진>을 체결했다.

베트남 응이손2 사업은 한전 컨소시엄(한전-일본마루 베니상사)이 지난 2013년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로부터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했다. 베트남 하노이 남동쪽 200km 응이손경제구역에 1200MW(600MW 2기)급 초임 계압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한전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최초의 발전사업으로 한전 은 성공적인 사업이행과 추가사업 개발을 통해 베트남을



필리핀에 이은 새로운 동남아 거점시장으로 육성·발전시 켜 나갈 계획이다.

총 사업비 약 23억불(2조6000억원) 중 75% 상당은 한 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연내 재 원조달을 마무리하고 발전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2021년

말 중합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이 사업을 통해 25년 운영기간 약 15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또 두산중공업이 EPC(설계·조 달·시공) 단기 계약자로 참여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들도 보조기기 공급자로 참여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0.57 (-1.83)	금리 (국고채 3년) 2.15% (0.00)
↑ 코스닥 709.94 (+0.83)	환율 (USD) 1115.60원 (0.00)



봉선동 명품 입지 ‘골드클래스 어반시티’

보광종합건설 주상복합 595가구... 전매제한 전 마지막 프리미엄

‘봉선주월 골드클래스 어반시티’가 10일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 선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1209-1번지 외 111필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로, 단지는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으로 84㎡ 아파트 426세대와 65 ㎡ 오피스텔 169세대 등 총 595가구 구 모로 조성된다. <조감도>

보광종합건설(주)이 시공을 맡은 광 주 ‘봉선주월 골드클래스 어반시티’는 전매제한 규제를 피한 남구의 마지막 프 리미엄 아파트로 선보인다.

특히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봉선 생 활권에 자리해 교육은 물론, 교통, 생활 등 프리미엄 인프라를 두루 갖춘 명품 입지를 확보한 것이 강점이다.

단지 인근에 장산초, 금당중, 삼육초·

중·고를 비롯해 대성여중·고 등 도보로 통학 가능한 20여개에 달하는 명문학교 이 밀집돼 있어 광주 최고의 우수한 교 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쾌적한 교통 여건도 눈에 띈다. 제2순 환도로, 서문대로, 대남대로 등 광주 시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가능한 교통망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오는 2023년 지하철 2호선 백운역이 들어설 예정이라 교통 인프라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남구청, 롯데마트, 아울렛, 월드킴프 기장, 무등시장, 동아병원, 광주기독병 원, 원광대 한방병원, 염주체육관 등 소 광·의료·레저 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편리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광주시 북구 경열로 250 NC백화점 앞에 위치했다. 문의 062-227-2278. /김대성기자bigkim@

“책임자 처벌 먼저” vs “협력 우선”

금호타이어 노사 경영정상화 해법 놓고 입장차

경영실적 악화로 채권단의 관리절차 를 받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경영정 상화 해법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노조(제1 노조)는 9일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경영 실 패에 따른 일차적 책임은 박삼구 회장과 채권단이 져야 한다”며 “채권단은 박 회 장을 고발·고소하고 금호타이어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산업은행 관계자들을 즉 각 인사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구성원들의 일반 적인 교통 분담 요구를 결사 저지하고 산업은행의 해외매각 재추진도 반대한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사측은 보도자 료를 내고 “독자 생존을 위해서는 소모 적인 책임공방과 갈등보다는 서로 협력 하고 노력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 선”이라며 “갈등과 반목을 거듭한다면 고객과 지역민들은 금호타이어에 등을 돌릴 것이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측은 또 “경영정상화와 임직원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며, 회사의 중심축인 노동조합도 회사와 사원들,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자율 협력 실사 및 경영정상화 과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 - 203평
- 147-4, 11, 15번지 - 31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장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

“무 인 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 “타 물건과 교환가능”